

31. 퇴계선생의 준법정신

예로부터 낙동강에는 은어가 많았다.



무더운 여름이면 강은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퇴계가 사는 집은 낙동강에서 가까웠다.

아버지 친구들과
먹감고 오겠습니다.



다녀오너라. 그러나
은어는 잡지 말거라.

네,
걱정마세요!



낙동강 은어는 맛이 좋아서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이었다.

역시 은어는
낙동강이 최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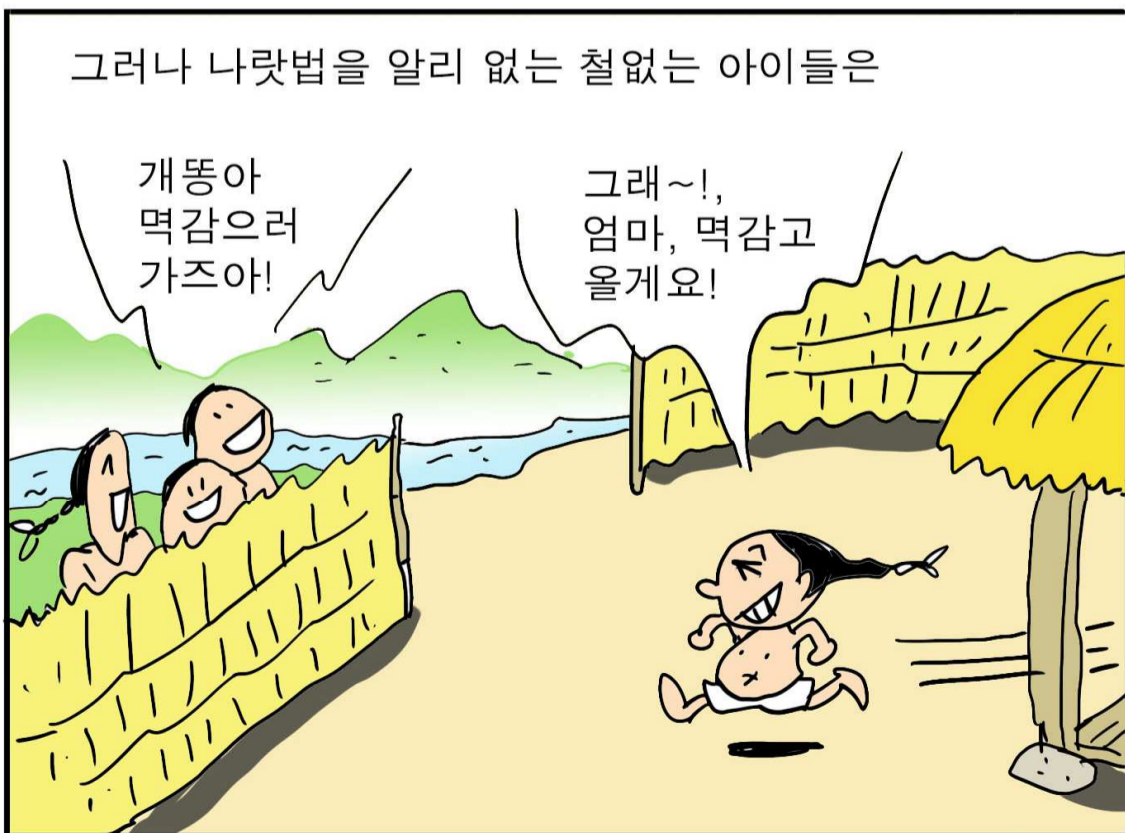
따라서 사람들이 은어를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랏법을 알리 없는 철없는 아이들은

개똥아
먹감으러
가즈아!

그래~!,
엄마, 먹감고
올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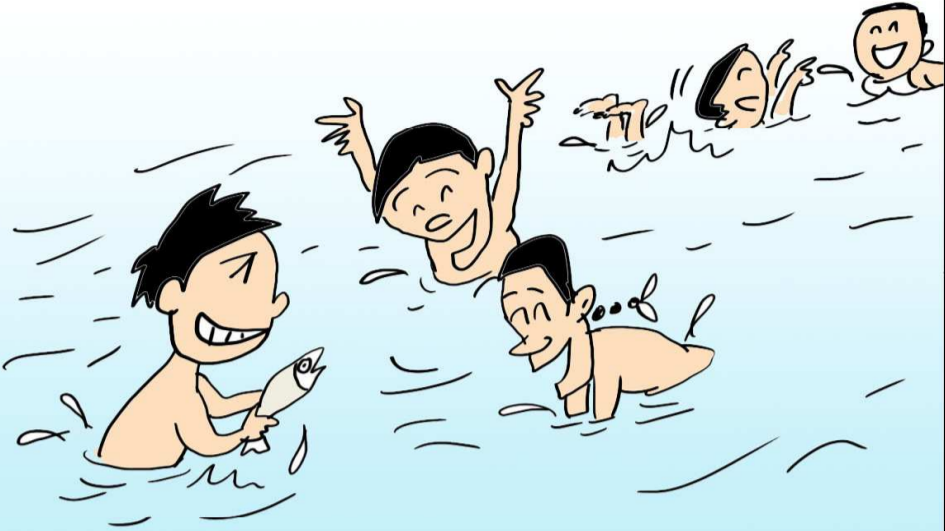
물놀이를 가면 은어도 잡게 되었다.

월척이다!

우와 대박!



그중에는 퇴계의 아들도 끼어 있었다.



오늘은 많이
잡았다!

엄마한테
매운탕
해달라야지!



얘들아 여기서 은어잡이는
불법이다. 국법을 어기면
안되느니라!

불법이 뭔데요?



법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말해봤자
마이동풍이로구나.
말이 통해야
대화가 되지!



나으리,
나 좀 봅시다.

에 어르신



애들이 물놀이하다
고기를 잡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에, 고기가 많이
올라오니 자연스레
잡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지 않은 법이라도
나라에서 정한 이상에는 일단
지키고 봐야지 여기면
되겠습니까?

듣고보니 나으리
말이 맞군요.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일러도 퇴계의 집 아이들도
은어를 잡아왔다.

강이 가까우니
물놀이와 고기잡이가
아이들의 일상이구나.



이제야 삼천지교를 한
맹자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



퇴계는 그렇게 낙동강에서 멀리 떨어진 죽동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다.